

화순소년합창단 서울서 창단공연



올해 여든이 된 박인채 전 KBS PD는 늘 ‘동요’와 ‘아이들’과 함께였다. KBS에서 어린이 시간을 40년간 담당했고, 이후에는 신인 섬마을 어린이들로 구성된 ‘섬드림합창단’을 운영, 해외 공연까지 진행했었다.

그는 언제가는 꼭 ‘소년합창단’을 만들고 싶었다. 어느 가족동요대회에 입상한 어린이가 대상을 탄 기쁨보다 연습하면서 하물없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너무나도 정겹고 행복했다는 말에 감동받아서다. ‘미래의 좋은 아버지들’에게 ‘노래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 만큼 의미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지난 2014년 고향 화순으로 귀향한 그는 ‘화순소년합창단’을 꾸리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그 결과 오는 15일 서울 나루아트센터에서 창단공연으로 뮤지컬 ‘아름다운 열매’ 공연을 갖는다. 서울 공연 전에는 11월 오후 7시 화순문화원에서 지역민들에게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합창단은 대부분 남녀 혼성합창단이다. 또 소년합창단은 대부분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 운영하고 있어 민간 소년합창단은 드문 경우다.

“신인 섬 아이들이 모두 육지로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2014년 섬드림합창단은 해체됐어요. 고향에 살고 싶다는 생각에 흠집을 짓고 귀향했죠. 제가 워낙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저 역시 딱딱한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 대화를 못한 게 늘 후회해 났죠. 어릴 때부터 남자 아이들에게 음악하는 정서를 심어주고 어릴 때부터 노래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년 시절에 노래하는 운동을 펼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혼성 합창단의 경우 60명이면 남학생은 10명도 안돼요. 아예 소년합창단을 만들자 싶었죠.”

단원 모집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화순 읍에만 초등학교가 4곳이라 그리 어렵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지난해 5월 열린 첫 번째 오디션에는 딱 1명이 왔다. 이후 어렵



박인채 단장

15일 나루아트센터서

뮤지컬 ‘아름다운 열매’ 선포

11일엔 화순문화원서 공연

박인채 전 KBS PD

고향 화순 귀향후 창단

“노래하는 마음 전하고 싶어”

사리 단원을 모집했지만 연습 중 학원에 가야한다는 동 결석하는 아이들이 많아 창단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초등학교 4~6학년 개구쟁이 단원 13명(이민재·최동호·손규원·구진서·김민영·노승민·문승욱·설재원·문주승·이민규·정엘립·설재호·박운호)이 단원이 됐고 아이들이 합창의 재미에 빠진 건 1년 6개월이 지나서였다.

“남녀 아이들이 함께 할 때는 서로 잘하려고 경쟁도 하는데 남자 아이들만 모아놓으니 장난치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꼭 제주도 망아지 같았나니까요 (웃음). 1년이 되니 조금씩 변해더군요. 남자 아이들은 목소리 키가 굉장히 높는데, 높은 소리를 아름답게 낼 수 있고 화음을 만들어 매너 합창의 맛을 조금씩 알아간 것 같습니다. KBS 재직 시절부터 ‘과수원길’ 등을 보급하는 등 동요를 많이 알리려

고 했어요. 동요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아직은 설악은 열매”인 아이들을 데리고 굳이 서울 공연까지 가는 건 합창단을 좀 더 널리 알리고 아이들에게도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초창기에는 지도 교사 경비 등을 모두 사비로 충당했지만 이번 서울 공연 등은 군에서 지원도 조금씩 받고 있다.

공연은 단순히 곡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뮤지컬 형식으로 꾸렸다. 산골 초등학교에 정년을 앞둔 음악선생의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아름다운 열매’는 산골 소년들의 성장기이기도 하다.

단원들은 학생 역할 뿐 아니라, 교장 선생님, 할머니 역할 등도 맡는다. 여자 단원이 없어 여학생 애실역을 맡은 손규원(화순초4)군은 “애실이는 순하고 착해요. 그래서 저는 애실역이 좋아요”라고 말한다.

이번에는 특별한 곡이 연주된다. 가곡 ‘님이 오시는지’로 유명한 고(故)김규환 작곡가가 편곡한 ‘장난감들의 합창’을 초연한다.

“오랜 인연이 있었던 김규환 작곡가님께 소년합창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모차르트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장난감 가게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며 작곡한 곡인데, 곡이 워낙 높아 소년소녀합창단이 부르기는 어려워요. 소년합창단은 가능하다 싶었죠. 채보를 하시고 편곡까지 해주셨는데 세상을 떠나신 뒤 이제야 부르게 됐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무용가 정영자씨(강선생역)와 한국어린이요들합창단이 특별출연한다. 합창지도에 서울시립합창단 객원 지휘자 엄기영씨, 연기지도에 연극인 김영찬씨 등이 힘을 보탤다.

화순이 정음성 작곡가가 초등학교를 다닌 곳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당초 ‘정음성 소년합창단’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기도 했던 박 단장은 화순소년합창단이 군립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류현자 작가 개인전

15일까지 예술의 거리 S갤러리

류현자 작가의 작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건 ‘버선’이다. 세상의 때 하나 묻지 않았을 것같은 새하얀 버선부터 시작해 녹색, 붉은색, 노란색 배경 화면속으로 들어가 각각의 색깔을 받아들이는 버선은 다양한 형상으로 중첩되면서 색다른 조형미를 선사한다. 여기에 연꽃과 목련이 함께 어우러져 인상적인 화면을 만들어낸다.

10여년전부터 버선을 소재로 작업해온 류현자 작가 개인전이 오는 15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S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작들 제목은 모두 ‘사모곡’이다. 작가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버선을 소재로 잡았다. 늘 한복 입는 걸 좋아하셨지만 몸이 불편해 버선 신는 게 쉽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고운 버선’을 선물해 주자 싶은 마음에서다. 또 버선의 곡선이아말로 한옥의 처마처럼 가장 한국적이고, 조형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생각에 평면, 입체 등을 넘나들며 버선을 소재로 작업중이다.

이번 연작 시리즈는 기존작과 비교해 리듬감을 살린 게 특징이다. 또 한지에 분체를 사용한 작품과 더불어 석분과 패분을 함께 사용, 입체감을 살렸으며 푸른색, 보라색 등의 다채로운 배경 화면은 점점 얼어지거나 질어지면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남대 예술대학과 경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류씨는 15차례 개인전을 개최했다. 문의 062-228-876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모곡’

광주신세계미술제 신진작가상 엄기준 초대전 신세계갤러리 21일까지

2015년 제17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신진작가상 수상자 엄기준 초대 개인전이 오는 21일까지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현대인의 생활 양상에 흥미를 느끼는 엄작가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으로 현대사회와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연작 시리즈로 풀어내 왔다. 지금까지 유화 연작을 선보였던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신작 ‘New City Build’ 연작을 전시중이다.

그는 직접 경험한 사회의 흥미로운 현상들과 그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를 연필 드로잉과 혼합재료를 활용해 표현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중인 작가는 각 나라에서 만나는 새로운 친구들의 다른 이미지를 한데 모아 새로운 도시의 형상을 만들었다. 또 연필로 그려진 무수한 점들로 구성된 역동스럽고 우스꽝스럽기도 한 사람의 몸통 이미지를 통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엄 작가는 6차례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16년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장작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베이징, 상하이 등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중이다.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여



‘New City Build-go to work’

지역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신세계갤러리가 199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공모전이다. 문의 062-360-16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순천 모건미술관 11일까지

레지던스 입주작가 최민숙 개인전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이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뜬다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최근 아이유가 불러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양희은의 ‘가을아침’ 가사가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붓이 약보를 써내려가듯 최민숙 작가는 자유로운 선의 흐름과 간명한 붓 터치, 절제된 구도와 형태를 추상화해 모두 24 작품을 완성했다.

순천 모건 미술관이 2017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의 레지던스 2기 입주작가인 최민숙 개인전을 오는 1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작들은 자연스러운 먹의 번짐 속에 다양한 조형성을 살린 캘리그라피로 가사를 적어 흥미롭다. 전통 붓글씨와 현대



‘가을아침’

적 감각이 결합한 캘리그라피를 통해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최 작가는 규격화된 전통서예기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필법을 구사한다.

원광대에서 서예를 전공한 최작가는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순천에서 작업중인 그녀는 2016년 한국서예협회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청년작가상’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가을 패키지

기간 • 9월 1일 ~ 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

신양파크호텔

가을여기행

가을 패키지

기간 • 9월 1일 ~ 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1인 + 사우나1인 (조식1인 추가시, ₩15,000)